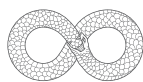

주간리트

조남희



orbibooks

Contents

목차

01

19학년도 LEET

06

02

18학년도 LEET

28

03

17학년도 LEET

52

04

16학년도 LEET

74

05

15학년도 LEET

96

06

14학년도 LEET

118

07

13학년도 LEET

140

08

12학년도 LEET

160

09

11학년도 LEET

180

10

20학년도 LEET

200

11

21학년도 LEET

222

12

22학년도 LEET

244

Prologue

안녕하십니까. 무명의 저자에서 단기간에 수천명이 사용하고 인정한 LEET 언어이해 자료를 만든 주간 리트 저자 조남희입니다.

현시점 대한민국 사고력 시험의 표준은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입니다. LEET를 활용한 공부는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뿐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수능, PSAT, NCS 등의 사고력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중에 수능 국어에 대한 사고 과정이 정리된 질 좋은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LEET의 경우 시중에 문제 해설을 다룬 자료는 존재하지만,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문 독해의 사고를 보여 주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LEET 언어이해 기출 문제에 대해 지문 독해의 사고 과정을 제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본 교재(주간 리트)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트 역시 의미 있는 질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평범한 리트 해설집처럼 문제와 답만을 해설하는 것이 아닌 각 지문에 대한 **저자의 '지문 독해'('독해 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사고의 흐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선지 판단에 대한 해설 역시 수많은 검토진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엄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문제 접근에 대한 **코멘트**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고력 시험의 대표 주자인 리트와 수능 국어 모두 상당한 난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규격화된 형식에 국한된 글만 잘 읽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어떤 글이든 글 자체를 잘 읽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역설(力說)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글이 나와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간 리트는 이를 위한 지문 독해 사고의 틀, 엄밀한 선지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 사고력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본인의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과 친구들, 주간 리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수많은 검토진분들, 교재 출판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오르비 북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12월

저자 조남희

검토진

- 박용규/22학년도 수능 국어 원점수 100
- 최재혁/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김근영/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서울국, 상상 모의고사 검토진
- 양정윤/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김은수/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지민선/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나 영/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강석현/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배수정/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찬빈/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시우/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준원/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8
- 강경훈/행정고시 1차 합격
- 은은수/22학년도 리트 백분위 83
- 이석원/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피랩t 질답 조교
- 임상원/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8/유대중t 더함 모의고사 검토진
- 이정원/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윤덕희/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모두가 능력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으셨던 검토진분들이셨습니다. 저의 교재 검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토진분들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덧붙여 저의 해설에 대한 조언과 출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호 선생님/「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저자

조경민 선생님/「만점의 생각」 저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출 분석 과정 예시

1.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기
→ 리트 수험생 기준 6~8분
수능 수험생 기준 10~13분
2. 채점 전 시간 제한 없이 지문을 독해하며 본인의 독해 사고 점검 후 답을 고른 사고 과정을 점검.
3. 채점 후 스스로 지문 독해 및 선지 판단 점검.
→ 지문 독해는 내용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독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 선지 판단은 근거 찾기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 선지를 골랐는지에 초점.
4. 자신의 지문 독해 과정, 선지 판단 과정을 해설 통해 점검·보완.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렴풋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07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08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0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10 윗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다. 그리고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통상 전자를 적극적 허용, 후자를 소극적 허용이라고 부른다.

[A]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이러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그러한 분석은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거나,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가령 법의 한 조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령 개방적 법체계 내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지탱할 수 있을 뿐인 나뭇조각을 서로 붙잡으려는 두 조난자에게 각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서로 상대방을 밀쳐 내어 죽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 내에서 인간의 자유란 단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상태, 즉 명령도 금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란 게으른 법의 침묵 덕에 어찌다 누리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규범적 질량을 가지는 권리일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와 허용 사이의 역설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산 자에 대한 위로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이 언제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같아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질은 오히려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일도양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19세기 분석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은 전통적인 법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은폐된 흠결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엄밀성은 사법 통제의 차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른바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판결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7~10] 지문 독해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지문의 시작부터 헤겔의 예술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적인 요소로 헤겔의 예술론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발전 법칙에 의거하고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한 철학적 미학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헤겔)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앞서 헤겔은 예술을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인식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헤겔이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즉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따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세 단계가 구분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tip 기준점

지문에서 차이를 제시할 때 몇몇 독해 태도가 덜 잡히신 분들은 차이점에만 초점을 두고 읽으시고 독해 태도가 좀 잡히신 분들은 공통점과 차이점만을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을 고려하고 공통점까지 주의하며 읽는 독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만드는 '기준점'을 인식하는 독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지문을 통해 예를 들면 독해를 진행하며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독해를 넘어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했을 때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의 차이가 뭐지?'와 같이 기준점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이 용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답니다. 배경지식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만,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적 용법과는 다르구나,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과 대응되는 용어들이 제시됩니다. [상징적 = 태고의 오리엔트 = 자연종교 = 건축 / 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 /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음악·시문학]이렇게 다른 표현이어도 같은 뜻을 지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범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다른 말 같은 뜻

지금 이 부분은 대놓고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줬지만, 이를 떠나서 지문 독해 시 '기표'가 다르지만 '기의'가 같은 말을 정확하게 같은 말로 인식하는 독해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문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같은 말을 같은 뜻으로 인식해야, 지문 이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문제 풀이 시에도 어떤 표현으로 나오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제시된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의 단계 설정은 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 +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해 발전합니다. 앞서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 +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앞서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의 범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건축, 조각, 회화·음악·시문학에 대해서도 각각을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의 범주에 포함시킨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는 점은 결국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각 시기에 다양한 장르가 공존할 수는 있지만, 전형적 장르는 상징적 = 건축, 고전적 = 조각, 낭만적 = 회화·음악·시문학만 한정된다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닌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보편적 정신사 및 발전 법칙임을 확보한 상태로 독해했다면 상징적 단계(오리엔트 자연 종교)의 보편적 정신사 단계는 인간 정신이 절대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막연한 욕구만 지닌 상태가 상징적 단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앞서 세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제시되었고 상징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각각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기준점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렴풋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거대 구조물(건축)에는 신의 자리에 신이 아닌 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이 놓입니다. 이는 앞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절대자를 구체적 실체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시된 상징적 단계의 특징을 확보한 상태로 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당겨읽기

여기서도 우리는 지문 초반 구체적으로 서술된 개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으로 범주화된 것들을 당겨 읽어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어야 합니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지문을 잘 이해하며 읽었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당겨 읽는 기본적인 습관, 문단과 문단의 뜻을 당겨 읽는 독해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겨 읽기 자체는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이므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상징적 단계와는 구분되는 고전적 단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징적 단계를 독해할 때는 상징적 단계만을 잘 정리하며 독해하면 됐지만, 이후부터는 기준점에 맞춰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 +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이 핵심 기준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보한 상태로 그리스인들은 신들을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고(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이라는 점을 당겨 읽어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 또한 앞선 내용의 구체화입니다. 동시에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상징적 단계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이 부분 또한 앞선 내용의 구체화(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입니다. 앞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무리 없이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tip 정말 사소한 팁

이건 정말 사소한 습관이지만, leet나 수능같이 잘 완성된 글에서는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장 강력한'이라고 대놓고 지문에서 강조를 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리스 조각(결국 고전적 단계)가 미의 '극치'라고 강조해줬으니 우리도 응당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이라는 핵심의 기준점에 근거했을 때 절대자를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정신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tip에서 말한 것처럼 대놓고 강조해줬으니 우리도 대놓고 인식) 계시 종교로 나아갑니다. 앞서 제시된 내용의 구체화이고(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핵심 기준점에 직결된 내용이니 응당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역시 앞선 내용에 대한 구체화입니다.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 · 음악 · 시문학) 이것이 감각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답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상징적, 낭만적 단계 모두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라는 기준점에 근거했을 때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징적 단계는 정신<형식 / 낭만적 단계는 정신>형식이라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 tip 모두가 아는데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

거시적으로(구조적으로) 두 쌍이 나올 때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다는 독해 태도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비교·대조 구조의 지문이 나올 때와는 달리 이 문장처럼 문장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지문의 트렌드가 대놓고 명확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지양하고 구조의 혼합, 밀도 높은 문장을 지향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단순히 글의 전체적인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독해 태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문장 단위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독해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 단계(낭만적)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후 제시되는 단계들 모두 낭만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입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상징-고전-낭만)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상징-고전-낭만)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다른 말 같은 뜻을 정확하게 집고 가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학적 차원에서 출발-완성-하강의 구조, 정신사적 차원에서 출발-상승-완성의 구조로 진행됐다는 것에서 상징적(출발, 출발) / 고전적(완성, 상승) / 낭만적(하강, 완성)이라는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독해했다면 미학적 차원에서는 '고전적'이 지성 차원에서는 '낭만적'이 정점이라는 점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미학적 차원, 정신사적 차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헤겔)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이지만 이를 ‘조화시킨’ 헤겔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답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며 독해를 마무리해봅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헤겔의 이론이 추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과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포섭력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에 대한 의의이니 정확하게 확보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앞선 부분과 같이 절대자의 제시라는 예술의 과제를 고대 그리스로 한정, 철학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헤겔 이론의 의의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7~10] 문제 해설

07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정답 ③

헤겔은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주장하며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세 단계를 정신사적 차원에서 출발-상승-완성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즉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인간의 지성의 역사와 관련된 종교적 역사 등)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헤겔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우선 고전적 단계를 제외한 상징적 낭만적 단계는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헤겔이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 헤겔은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주장하고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제시한 것을 통해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 헤겔은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제시하고 완성의 단계(고전적,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에서 예술미의 정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⑤ : 헤겔은 낭만적 단계를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차이를 정확하게 확보했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멘트

글의 핵심 기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보한 상태로 문제를 풀었다면 문제 풀이에서 어려움이 없었을 문제입니다.

08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상징적 = 태고의 오리엔트 = 자연종교 = 건축 / 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 /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음악·시문학]이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범주에 해당되는 장르)로 한정됩니다. 즉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 예술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②④⑤

다른 말 같은 뜻 [상징적 = 태고의 오리엔트 = 자연종교 = 건축 / 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 /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음악·시문학]을 정확하게 확보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09 읽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③

헤겔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고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낭만)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고전적 단계이고 가장 지성적인 것은 낭만적 단계이고, 이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헤겔은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고전)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가장 앞 단계(상징)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 헤겔은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고전)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가장 뒤 단계(낭만)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 헤겔은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상징-고전-낭만)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르는데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고전)라고 주장합니다. 즉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상징)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된 것은 맞지만, 가장 추한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코멘트

다른 말 같은 뜻을 정확하게 잡고 가셨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10 읽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나머지 선지

① :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합니다. 즉 개념에만 주로 의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 헤겔의 미학은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집니다. 즉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 헤겔의 예술론은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로 구성되고 이 정신사적 차원에 따라 인간이 신에 대한 의식(종교사적 차원)의 변화를 보입니다. 즉 정신사적 차원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했다는 진술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④ : 헤겔의 예술론은 [상징적 = 태고의 오리엔트 = 자연종교 = 건축 / 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 /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 · 음악 · 시문학]으로 시대 구분과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코멘트

개인적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잡았다면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배경지식의 유불리가 너무 크게 작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번 선지가 지문의 내용과 완전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4번 선지를 고르신 것은 지문 독해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만, 5번 선지를 고를 때 애매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건 독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문 외적 지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평

지문이 첫 문단에서 제시된 핵심 기준점에 대한 구체화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문단을 독해할 때 핵심 기준점을 확보한 뒤 이후 그것을 당겨 읽으며 [상징적 = 태고의 오리엔트 = 자연종교 = 건축 / 고전적 = 고대 그리스 = 예술 종교 = 조각 / 낭만적 = 중세부터 유럽 = 계시 종교 = 회화 · 음악 · 시문학] 다른 말 같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핵심 기준점을 인식하지 않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같은 뜻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독해했다면, ‘지문의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 ‘정보량이 왜 이렇게 많아’, ‘지문이 유기적이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며 독해를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많지만, 이 지문에서는 핵심 기준점을 확보한 상태로 다른 말 같은 뜻을 이해하는 독해 태도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21 위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명확한 법을 갖는 것보다 유연한 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자유는 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가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 ③ 법의 지배를 강화하려면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분석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의 합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입장은 자유의 확보에 기여한다.

22 <보기>의 법 조항에 대해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 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① 출생한 이후부터 사람이므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되지는 않는다.
- ② 자살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타인의 자살을 돕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말기 암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생명이 위태로운 타인을 구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리 무관한 타인이라도 그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 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라도 살리기 위한 행위는 그것이 곧 나머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일지라도 허용된다.

23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21~23] 지문 독해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다.

법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 법의 개념을 납득한 다음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답니니다. 즉 법의 규범 양상, 법의 요소들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법은 명령, 금지, 허용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통상 전자를 적극적 허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후자(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를 소극적 허용이라고 부른다.

앞서 제시된 법의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적극적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극적 허용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은 해당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지문 독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히 각각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지문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지문 초반 정보

지문 초반부터 명령, 금지, 적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독해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독해 태도가 있지도 않고 쓰일 수도 없습니다. 초반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지문 초반 이렇게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쏟아지면 특별한 독해 태도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써서라도 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일정한 의미론,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답니니다. 즉 우리는 앞서 제시된 명령, 금지, 허용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해당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며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지만,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며 소극적 허용을 함축합니다. 해당 문장을 독해하며 명령은 적극적 허용 함축, 금지는 적극적 허용 부정 / 명령은 소극적 허용 부정, 금지는 소극적 허용 함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당겨 읽기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극적 허용을 당연히 부정합니다. 또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허용을 당연히 부정합니다.

앞선 개념들을 당겨 읽으면 논리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실전에서 여러 변수로 당겨 읽기를 통한 판단이 어렵다면 우선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납득'이라도 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차선책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허용은 금지보다 넓은 범주이니 당연히 금지를 함축하지 않을 것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 허용 역시 명령보다 넓은 범주이니 명령을 함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금지와 명령보다 더 넓은 범주라는 이해를 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A가 B보다 넓은 범주라면 A는 B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포유류는 사람을 함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모순 같지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둘 다 가능성의 영역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허용이며 적극적 허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려 읽으면 모순 같다 느껴질 수 있지만, 앞서 제시된 개념을 통해 해당 부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상위 범주 / 하위 범주

독해 시 명령은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명령이 소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적극적 허용의 하위 범주임을, 금지는 소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금지가 적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소극적 허용의 하위 범주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명령, 허용, 적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은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해해 네 가지 양상으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하셨으면 충분합니다.

◇ tip 문장내 이해

[A] 부분에 제시된 각 규범 양상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해 다시 돌아와서 파악하게 될지라도, 독해 시에는 최대한 관계를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현 트렌드는 이해 없이 단순 서칭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문장 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 내포된 뜻, 관계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독해 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 금지, 허용의 관계가 어떻게 입법 기술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지 파악해봅시다.

즉 그러한 분석은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거나,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규범 양상들의 관계는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됩니다. 규범 양상들이 법을 명확하게 하며 과잉 방지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독해를 이어나가면 충분합니다.

가령 법의 한 조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소극적 허용과 명령의 부정관계, /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 적극적 허용이 명령의 상위 관계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예시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앞선 개념을 예시에 연결하는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적극적 허용이 명령의 상위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앞서 +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석이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개념 간 관계가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제시된 개념 간 관계가 비판받고 있는 것인지 ‘이유’에 집중하며 독해를 이어갑시다.

법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 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앞선 관계에 대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즉 앞서 제시된 관계는 폐쇄적인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이고 해당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입장은 개방적인 법체계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가령 개방적 법체계 내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적극적 허용과 금지가 부정 관계라 제시한 것과 달리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적극적 허용과 금지의 부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일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적극적 허용과 금지의 부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시된 사실 자체를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적 법체계에서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으로 따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식하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지탱할 수 있을 뿐인 나뭇조각을 서로 붙잡으려는 두 조난자에게 각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서로 상대방을 밀쳐 내어 죽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예시도 예시 자체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금지되지 않은 행위면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예시를 통해 개방적 법체계 시점에서는 규범 양상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적 법체계의 경우를 비판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문제는 규범 양상 간의 관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문제는 폐쇄적 법체계가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약화된다는 것인지 이해해 봅시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 내에서 인간의 자유란 단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상태, 즉 명령도 금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할 뿐이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폐쇄적 법체계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만 지칭될 뿐입니다. 둘을 대비해주며 제시된 그대로 정보를 구분해주고 독해를 진행

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란 게으른 법의 침묵 덕에 어찌다 누리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규범적 질량을 가지는 권리일 수는 없게 된다.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진 상태를 자유로 보기에 자유의 가치가 약화된다는 말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장이 앞선 내용의 재진술임을 인식해 뜻을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두 가지 비판점(규범 양상 간 관계 통용 안 됨, 자유의 가치 격하)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에 대한 반론이 제시된다니, 기존의 비판 포인트를 인식한 상태로 그에 대한 재반박을 파악합니다.

우선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 사례 = 규범 양상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시만으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폐쇄적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와 허용 사이의 역설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산 자에 대한 위로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도 불가피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금지와 허용의 역설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이 언제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같아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질은 오히려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의 가치가 격하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으로 인해 자유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는 폐쇄적 법체계가 옳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비록 일도양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의 한계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폐쇄적 법체제도 완벽한 것이 아닌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폐쇄적 법체계가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이 있음(변화 대응 더딤, 부당 법 옹호 가능)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19세기 분석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은 전통적인 법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은폐된 흠결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엄밀성은 사법 통제의 차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른바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판결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폐쇄적 법체계가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했고, 자의적 법 해석을 줄여줬습니다. 즉 폐쇄적 법체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점 이상으로 장점(자유 영역 확보, 자의적 해석 방지)이 있기에 폐쇄적 법체계를 지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문제점(변화 대응 더딤, 부당 법 옹호 가능), 장점(자유 영역 확보, 자의적 해석 방지)을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 지었어야 합니다.

[21~23] 문제 해설

21 위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지문에서 분석법학은 양도일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분석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의 합당성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지문에서 폐쇄적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폐쇄적 입장에서 분석법학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법을 갖는 것보다 유연한 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 지문에서 분석법학이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의해 자유가 확보된다는 것으로 글쓴이는 자유를 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③ : 글쓴이는 분석법학이 자의적 해석에 대해 판결은 법률의 문헌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의 지배를 강화하려면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⑤ : 글쓴이는 개방적인 법체계보다 폐쇄적 법체계가 오히려 자유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입장은 자유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지문의 핵심을 이해한 상태로 단순 복붙된 선지가 아닌 재구성된 선지까지 이해한 뒤 판단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2 <보기>의 법 조항에 대해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분석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금지입니다. 발문에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묻고 있기에, 폐쇄적 법체계로도 가능한 해석을 찾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기>에서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폐쇄적 법체계에서는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 아니다."라는 예시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금지를 적극적 허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의 부정으로 취급하는 선지를 찾으려 합니다.

정답 ②
자살을 돕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된 행위(=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를 허용하지 않는다(할 수 없도록 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해석이 아닌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한 해석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출생한 이후부터 사람임으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③ : 말기 암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기>에 근거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④ : 생명이 위태로운 타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허용인데, 무관한 타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는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⑤ :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살리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코멘트

상당히 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규범 양상의 관계 + 폐쇄적 법체계의 특징과 개방적 법체계의 특징 모두를 이해하고 선지에 적용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3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명령 ⊃ 적극적 허용 / ~(적극적 허용⊃명령)
- 명령 ⊃ ~(소극적 허용)
- 금지 ⊃ 소극적 허용 / ~(소극적 허용⊃명령)
- 금지 ⊃ ~(적극적 허용)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지도 함축하지도 않음.
 ⇒ 즉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 허용의 영역에 있을 때 소극적 허용의 영역에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음(둘 모두 단정적 영역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라는 뜻으로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공존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명령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어떤 행위가 명령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적극적 허용이 맞고,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맞습니다.

② :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므로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공존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므로 소극적 허용의 하위인 금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금지,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공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기에 적극적 허용이며 소극적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극적 허용이거나 금지인데 금지도 결국 소극적 허용에 포함됨으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멘트

규범 양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그 중에서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서로 배제하지도 함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총평

어려운 요소로 불리는 과한 정보량, 복잡한 비례 관계, 불친절한 과정 서술 등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문의 난도는 상당히 높고 밀도도 높은 지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당 지문은 ‘이해’ 자체가 중점이 된 지문이었습니다. 초반에 제시된 규범 양상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통해 규범 양상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파악한 관계를 통해 개방적 법체계와 폐쇄적 법체계의 논박까지 이해했어야 하는, 초반에 제시된 핵심 개념들의 이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이해하며 진행했어야 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지문은 특별한 독해 태도보다는 결국 초반의 핵심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후에도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내용을 이해하며(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